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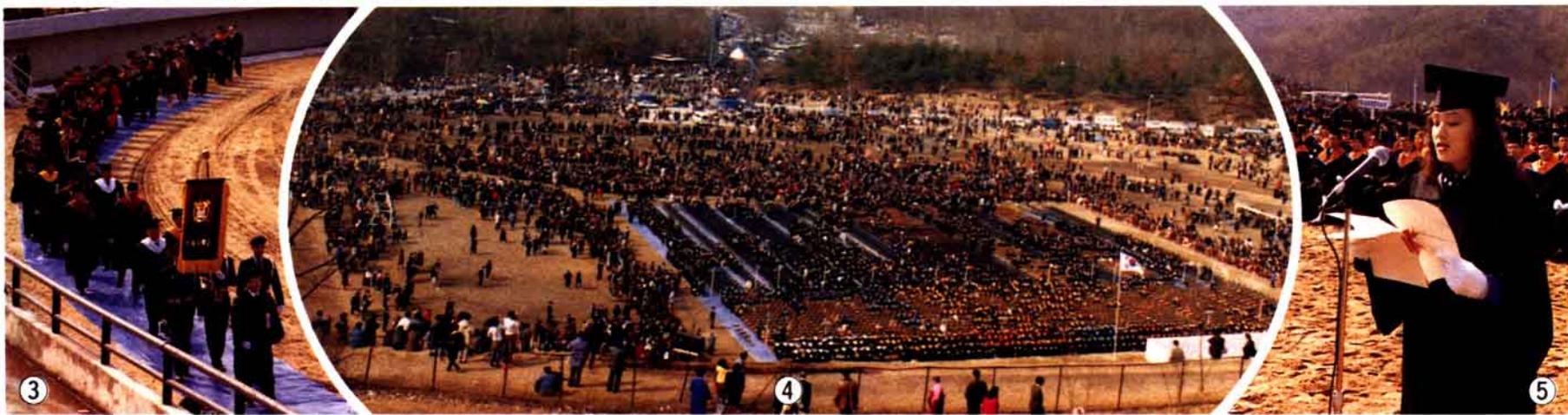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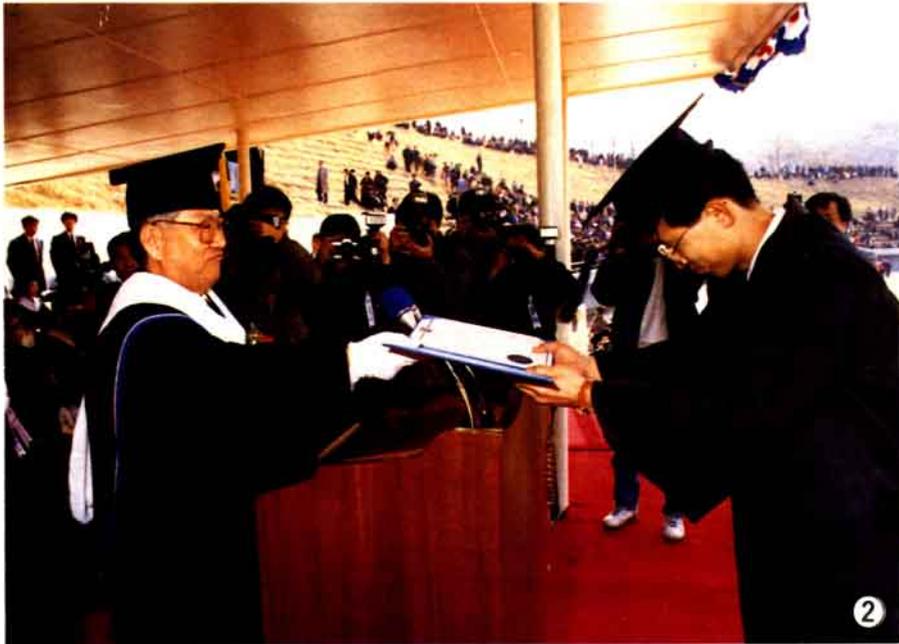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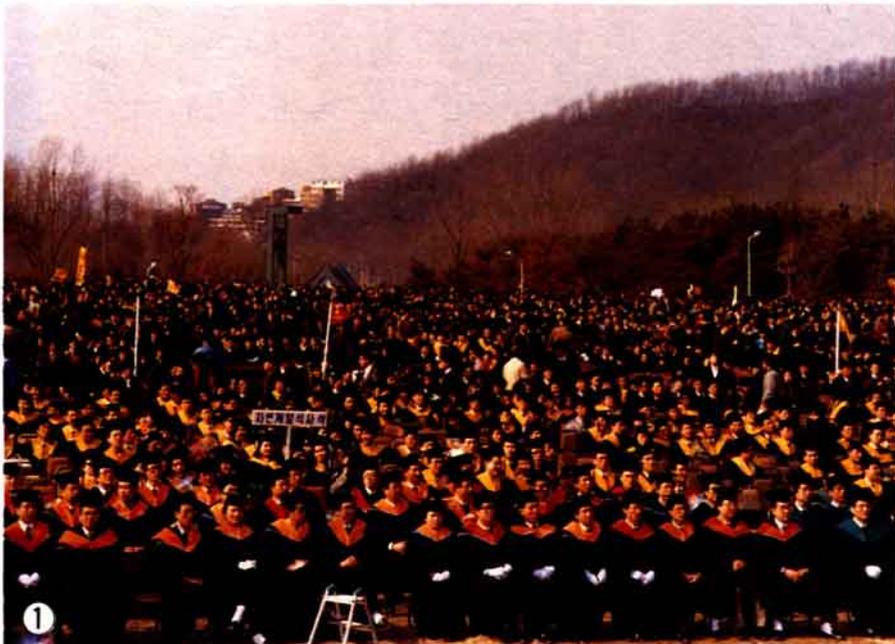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崔 瑞 泳
印刷人 崔 瑞 泳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F A X : 703-0755.

銀行지 로 番號 : 7500875
對 替 口 座 : 010017-31-0621565

會員 20萬 육박



祝福받은 卒業式 근래 보기드문 화창한 날씨속에 거행된 모교 제46회 卒業式 光景. 寫眞② 總長의 학위 수여 ③ 학사행렬 ④ 卒業生代表 答辭. 同窓會는 이날 5천 7백35명의 새 家族을 맞았다. <관련기사 3·18면>

冠岳春秋

지난달 26일의母校第46回卒業式을 기해우리同窓會의 會員은 20萬을 육박하게 되었다. 學士 3천 7백 83名, 碩士 1천 6백 48名, 博士 3백 4명 都合 5천 7백 35名의 새 會員이 우리 동창회에 加入하게 되었으며, 우리 同門 一同은 이들을 아낌없는 박수갈채로 歡迎하는 바이다.

우리 母校는 光復後에 오늘날과 같은 綜合大學으로 발족했기 때문에 몇몇 單科大學을 제외하고는 다른 名門私立大學에 비해 그 歷史가 짧다. 따라서 同門의 수도 대학의 名聲에 비추어 相對的으로 적다. 그러나 20萬이나 되는 同窓會를 갖는 大學은 이제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意味에서 이번의 新入會員을 맞이한 것은 매우 큰 뜻을 갖는다. 하겠다. 말할 것도 없이 民主社會에서는 사람 숫자가 우선 重要한 뜻을 갖는다. 어느 團體나 組織을 보아도 그 會員이 20萬이나 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家族이 20萬이나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든든해진다.

그러나 더욱 큰 뜻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同門의 資質이 뛰어나다는 것은 自他가 公認하는 바이다. 그 證據로 우리 社會에서 우리 同門이 차지하는 比重을 들 수 있다. 여기서 同門이 우리 同門의 社會活動樣相을 論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左右간 우리의 巨大한 社會에서 우리의 동원이 一時에 빠져나갔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比重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新人 회원을 歡迎함

이런 새로운 加入하게 되는 學士 新入會員은 이른바 88學番으로서 1988년도 入學生들이다. 1988년도는 第6共和國의 出帆號고 88을 臨피어 開催되었던 해이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크게 記錄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동안의 國內外的 大變動을 잊을 수 없다. 新入會員들의 재학생 國際的으로 獨逸의 統一, 소련을 위시한 東歐圈의 러나라의 開放 및 改革 등 세계사적 大變動이 있었다. 戰後 世界를支配했던 兩極化現象이 解體되고 국제적 和解와 協力을 다짐하는 새 시대의 門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런 國際的 變動의 余德으로 이번의 新入會員중 많은 사람들이 舊 蘇聯 國의 獨立國聯合, 中國 및 그외의 東歐의 여러나라의 變動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學窓時節의 경험은 우리 同門이 일찍이 갖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同門들의 새로운 刷新의 기틀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國內的으로 지난 몇년간, 우리는 엄청난 變動을 겪었다. 우리는 民主化를 위한 크나큰 代價를 치르었고, 사회적으로도 社會正義를 실천하기 위한 奮鬥을 겪었다.

그런 속에서 南北간에는 오래 묵은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對話의 길이 터서 要員의 往來가 빈번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일을 新入會員은 學窓時節에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역사적 參與의 길을 摸索하기도 했다.

時間은 덧없이 흘렀다. 이렇듯 귀중한 歷史의 흐름속에서 學業을 마친 새 會員이 우리의 同門家族으로 편입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밝고 희망찬 앞날을 祝願하는 뜻에서 그들에게 한가지 提言을 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 社會의 力量을 바로잡기 위한 同窓會의 수감이 되라는 말이다. 우리의 동원이 知的으로 優秀하고 卓越하다는 것은 事實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道德的으로 도과 연 그라했는가. 또 다른 角度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社會의 不信風潮와 타락현상을 개탄한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서 우리 同門이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지할 位置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동원의 責任이 莫重함을 새삼 痛感해야 할 것이다.

母校가 발족한 이후 이력적 半世紀가 훌러가고 있다. 國內外的으로 새로운 歷史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새 역사의 創造를 學窓時節에 목격하면서 성장한 새 會員이 母校와 同窓會 그리고 우리 社會의 實의 發展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기를 祝願한다.

制憲제의 愛國 清廉정신 본받자

우리는 24일인 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다. 1948년 5월 10일 制憲國會議員總選에서부터 44년 이 지났는데도 選舉에의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생각해보면 5·10 選舉는 그 때 도 깨닫힌 선거였고 建國理想의 불타고 있던 선거였다. 이 선거가 單獨選舉라고 하여 祖國의 永久分斷을 초래할 것이란 생각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가 있었던 것이 흠이긴 하였다.

制憲國會議員選舉法은 美國式 制度를 모방하여 선거인인 자신들 특유하여 하였고 피선거권을 규제하여 親日派에게만 입후보자격을 박탈하였고 미국산으로 선거운동에 자유롭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타락 부패하지 않았다. 制憲議員중에는 애국하는 자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歲費 조차 받기를 거절한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점차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 自由黨의 영구집권부패문제가 되었다. 4·19 이후의 總選은 자유당의 말문을 자초했고 5·16 이후의 總選은 軍政연장과 軍政連속이다. 대결속에서 官權의 편을 치른 것이었다. 5·16 때부터 金錢選舉가 판을 치더니 금기가 없는 金錢選區로 변질되고 6共 13代 선거에서 10黨 8黨이던 金權의 지배가 선거로 되어 버렸다.

이제 헌정인 제 14대 선거의 양상은 부패와 타락의 극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地域區공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 全國區公選은 論功行賞型, 정치자금모집형, 落選者 무마형 등 이른바 사영회의

14代 총선의 意義

국민의 비축을 사기에 이르렀다. 各黨의 인물분위 참신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니 당선가능성이란 자로 재어 현역 국회의원의 불같이 폭은 10%정도 밖에 안되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부패의 나태가 선거를 재公黨한 정당들의 잠재능을 한심하게까지 하였다. 전국구공천에서는 30億에서 50億을 현금으로 티켓을 판 사람

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與黨에서 落選하는 경우 무소속 입후보를 하거나 他黨에 입당하여 입후보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總裁의 레임·도덕성 때문인지 많은 落選者가 말을 갈아타고 입후보하고 있어 흥미롭다. 統野野黨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낙선자들의 입후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政黨의 몰락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구걸하여 당선되어 고위 高位職까지 맡고 있었던 사람이 공천에 탈락하였다 하여 오랫동안 몰락했던 黨을 차 버리고 떠나 다른 黨에 입당,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정산인에게도 상선하기

다. 그런데 그동안 自由黨과 共和黨, 民主黨, 民主黨으로 여당이만 몰락하여 온 사립도 있고, 與黨인 자유당에서 野黨인 민주당으로 다시 與黨인 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도 있다. 場地에서만, 정권을 차지한 정당에만 기생 하려는 이들 정치인들에게서들을 금치 못하겠다.

다. 그렇게 호소하고 黨內競選을 대비하여 국회의원후보자들을 지원하고 다니기 때문에 전국이 가마솔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韓國經濟를 생각할 때 1년여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따로 치뤄야 하는가 의문이 나기도 한다. 마치 대통령 豫選과

대하여 투표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우리의 選舉法은 인물이나 정당이나의 양자택일을 하게 하고 있어 문제다. 獨逸의 선거법은 地域區에서 인물을 뽑고 대선구에서는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선거법을 고쳐 지역구에서는 인물을, 전국구에서는 정당을 선택하게 하여야 하겠다. 현행 全國區제도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濫權이다. 또 정당이 아닌 특표수의 다라서가 아니고 정당이 아닌 議席수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時論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 主權者인 국민이 이번 선거가 統一選舉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하는 것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리사욕의 정은 政商羣을 배격하고 廉潔의 眞理를 밝아야 할 것이다.

이런 선거에서도 저차원적인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행해지고 있고 금품살포 등 타락정신이 보이고 있다. 우리들 有權者는 이러한 유흥을 뿌리치고 진권을 건국하면 制憲國會議員선거 때와 같이 깨끗한 표를 행사하여야 하겠다. 우리도 또한 민권의 장대가, 불의와 정제적 번영이 이 선거권 행사에 달렸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겠다.

金哲洙 (56년 法大卒·모교 教授 本報 編輯委員)

所信없이 黨籍바꾸는 철새政治人 난무
"人物이나, 政黨이나, 有權者 고민
政商羣 배격하고 統一役軍 뽑아야

같은 국회의원선거와 대동 형본選을 두 번이나 치뤄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때 本의 생산현장에서 일해야 할 産業役職들이 선거유세장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고 수출·드라이브의 혁신해야 할 재벌그룹 任職員들이 정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현상이 서늘하기만 하다.

大統領 에선격, 全國이 가마솔 不法腐敗 타락의 極致 보여줘

이상을 주어도 第 3黨으로 발돋움까지 하고 있으니 기염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철새정치인들은 정치 적 소신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이다. 政黨을 선택하는 동기가 오직 국회의원되기 위한 발판이므로만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의 퇴락도 개인의 이익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政黨을 바꿀 것이요, 選擧民을 배반하는 형태를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정당이냐 저정당의 특색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든가, 大統領선거의 前哨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든가, 민주당의 세력고위권과 민주당의 두 최고위원, 국민의 두 최고위원들이 모두 대통령선거의 위원을 모두 대통령선거의 위원을 두고 있기 때문의 선거전과 관련된 치탄과 같은 것만 관련해서만 대總統선거를 준비해서 치뤄야 할 것이냐에 대해 서까지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대통령 지망자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국민

같은 국회의원선거와 대동 형본選을 두 번이나 치뤄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때 本의 생산현장에서 일해야 할 産業役職들이 선거유세장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고 수출·드라이브의 혁신해야 할 재벌그룹 任職員들이 정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현상이 서늘하기만 하다.

有權者인 국민들에게 이 번 總選에서의 신념이 고 민거리이다. 인물의 대하 여 투표할 것이냐 정당의

尹錫鉉(經營大經濟학과)



졸업후를 통해 부딪혔던 아수롭다는 母校 졸업생으로서의 명예와 국가·사회에의 기여, 자신의 성

할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때로 관심분야에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동진 교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진 교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진 교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우(경영학) 기억스런

장도 모호하여 하는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김동진 교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진 교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게 된 것은 평소 財務와 金融分野에 관심이 컸고 또한 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사회의 발전은 각분야에



— 新入 會員들의 所感과 포부

同窓會는 지난 2월 26일 모교에서 학위를 받은 5천 7백 35명을 새회원으로 맞았다. 本報에서는 새회원 몇분을 만나 졸업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母校와 동창회에 바라는 일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大學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母校에는 도서관등의 시설 확충을, 동창회에는 보다 견고한 유대감을 강조했다.(無順)



『 벌써 4년이 지났다 나, 택시에 직감을 두고 내린 기분입니다.』라고 졸업소감을 밝히는 李相斌은

圖書館 시설 대폭 擴充해야

李相斌(大원자학) 인터뷰

은 학생들이 高校생활에서 벗어나 해방집에 빠져 자칫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李相斌은 金昌圭 교수의 「나, 택시」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에 정진할 것을 당부한다.

가 많지만 이런 아쉬움속에서 배우 교훈으로 앞으로 살아갈 발걸음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한다. 『 대학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던 부모님께 졸업의 의미를 드리고 싶다.』

洪俊豪(法大 公법학과)



『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人文大學안으로 걸어나오며, 흰하

를 갖게 된 데 감사를 느낀다. 앞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재학 중에도 주신 大權·胡文赫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洪俊豪는 서울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양한 것 같은데, 모조리 각자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견지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平和·사랑이 法曹人 心魂

『 바들바들이 몹시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제게 대학의 공명체문화는 가장 먼저 느끼게 해준 곳

이며, 슬프고 외로울 때 위안을 주던 곳입니다. 그곳을 보면 4박자 춤을 추며 함께 부르던 農民歌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 農民歌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 農民歌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吳相燮(命大 教育학과)

『 가르치는 기쁨 마음껏 누릴터입니다.』라고 졸업소감을 말하는 吳相燮은 재학 시절 주체적인 삼교직을 선택한 것에 대해 누구보다 가르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崔恩閔(音大 기악과)



『 화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다가 한 사람의 社會人으로 출몰하면서 갑자기 주어진 『自由와 예술』이란 폭넓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 화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다가 한 사람의 社會人으로 출몰하면서 갑자기 주어진 『自由와 예술』이란 폭넓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 Master가 되기에는 너무 부끄러움을 알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졸업소감을 밝히는 李南暎은 그러기 계속 공부해 물리화학적

碩士학위자로서 부끄럼 느껴

李南暎(大學院 물리학과)

『 Master가 되기에는 너무 부끄러움을 알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졸업소감을 밝히는 李南暎은 그러기 계속 공부해 물리화학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韓醫學계
중에는 四象醫學, 八象
醫學이 있다. 世界 어느
나라에도 없는 特殊體質
論이다. 지금까지 四象
醫學의 네가지 체질 즉
太陽人, 少陽人, 太陰
人, 少陰人의 정확한 진
단법은 없는 실정이다.
四象醫學의 醫聖 李濟
馬선생이 약 백년전에 창
안한 기발한 의학적
고, 사람의 인질형, 체
형, 기질(성격), 발생을
이론적, 실험적, 종합적
재, 식성등의 특성이 있
고, 이런 특성을 잘 관찰
하여 체질진단을 하게 되
어 있다. 그런데 실제 사
람(환자)을 관찰해보면
이런 특성이 애매해서 체
질진단이 정확하게 될 수
가 없는데가 많다. 즉
정확한 체질진단이 불가
능하다고 것이다.



필자는 1970년부터
八象醫學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 과학적 체질진
단법을 찾아보려고 시간
이 있을 때마다 시도하였
다. 實驗, 實驗, 實驗의 성
분분석, 토끼를 사용한
실험, 한체반응, 토끼
의 체질유무등을 조사해
보았으나 전부 실패로 돌
아가고 체질진단의 과학
적 방법인 현재의 연구방
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八象體質의
진단은 한의사 權度沅박
사(八象體質脈診法)가 발
명한 八象體質脈診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
데 이脈診法도 어려워서
오진하는 일이 많고 불안
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 우연히 신기한 현상
을 발견하였다.

四象體質 진단법

李明馥 (39년 醫大卒 · 모교
명예교수 · 대림의원장)

「힘이 약해지는 곡물
은 해가 되는 곡물」이라
고 설명해 주었다. 참으
로 신비스러운 현상이었
다. 필자는 좋은 것을 한
가지 배웠다고 좋아하며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
게 설명해보았다. 잘 들
어도 있고 잘 안 들어도
있어서 신빙성이 별로 없
는 것 같아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렸
다.
그러나 실시하기에는
대단히 간단하고 열심히
연습해보면 실용 가능성
이 있다고 본다. 이것이
腕力調査法(食品調査)의
제 1方法이다.



遺傳공학

盧賢模
61년 師大卒 · 모교 自然大교수

分子生物學의 발전으
로 1980년대 초부터
遺傳工學技術이 생겨나
게 되었다. 생물의 모든
생현상이나 생명체의
발전은 유전자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생명체의 사멸법도
유전자는 유전자들을 재
조합, 이주, 증폭, 용
합, 치환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명
체를 창조한다든가 또는
결정성이 있는 유용한 물
질을 생산하는 생명체로
전환하는 기술이 유전공
학의 한 분야이다. 이와
같이 생명체의 사멸법도
유전자는 유전자들을 재
조합, 이주, 증폭, 용
합, 치환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명
체를 창조한다든가 또는
결정성이 있는 유용한 물
질을 생산하는 생명체로
전환하는 기술이 유전공
학의 한 분야이다.

21세기 핵심 産業技術

人類의 4大難題 해결기대

더 흥미 있을까 하고 생
각도 해본다. 우선 생각
나는 대로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현상이 우리 생
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을 예로 들겠다.
우선 醫藥분야가 불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회
사들이 돈을 벌 수 있고
특히 보호가 힘기 때문에
다. 전염성 질병은 거의
완벽하게 항생제 및 抗體

생산으로 예방 및 치료
가능할 것이다. 특히 독
감이나 후천성면역결핍
증후군 등 예방, 예방 및
치료법이 유전공학기술
에 의해 나올 것이다. 노
화 및 암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나 부
분적이나 제한적으로 성
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食糧분야에 어
편과 과잉과 과잉이 있을
것이다. 살과 파자, 먹고 살
아가는데는 양식의 양적
및 질적인 문제가 있
다. 유전공학 기술로서
이 광범위하지 못했던 전
통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물 物質은 심우소의
다. 심우소는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것인데 나무
의 목질부가 좋은 예이
다. 유전공학 기술로 심
우소분해효소를 대량 생
산하는 미생물을 개발하
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대
량의 알코올을 생산하는 공
고 있었으니 이것이 녹색혁
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
가. 특히 보호조치에 필요
한 연구가 되면 조만간
희한한 생물들이 등장할
것이다. 가축분야에는
코끼리만한 돼지, 염소
와 양을 섞어놓은 「염소
양」복제 개구리 등의 낯설
지 않은 단어들 사용된
지 오래다.
유전공학기술이 예년
지분야에 손을 대는 사
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념

이 광범위하지 못했던 전
통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물 物質은 심우소의
다. 심우소는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것인데 나무
의 목질부가 좋은 예이
다. 유전공학 기술로 심
우소분해효소를 대량 생
산하는 미생물을 개발하
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대
량의 알코올을 생산하는 공

人體의 神秘性 이용

太陽 · 少陽 · 太陰 · 少陰으로 구분

腕力調査法 第2方法
1987년 여름에 腕
力調査法의 제 1방법이
생각났다. 그래서 오른
팔을 아래로 내려 놓아서
팔힘을 조사하는 대신 오
른 팔 손목에 무거운 물건을
달아두고 10kg을 받
고, 자루를 묶어 끈을
오른팔 손목에 걸고 오른
팔을 위로 올리도록 하면
팔힘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한 가지씩의 시
험을 한 것 주면 수평을
이까지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결국 10kg의
무게가 나니 오른팔 힘은
나실만큼 약해졌으니 오른팔
가 되는 것이다. 단, 이
자갈의 무게는 개인의
팔힘에 따라 차이가 있
어야 한다. 각 개인이 최
저의 힘으로 수평까지 들
어 올릴 수 있는 무게 이
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자



나실만큼 약해졌으니 오른팔
가 되는 것이다. 단, 이
자갈의 무게는 개인의
팔힘에 따라 차이가 있
어야 한다. 각 개인이 최
저의 힘으로 수평까지 들
어 올릴 수 있는 무게 이
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1970년대부
터 하나의 체질(대양인)에
해가 되는 식품과 유익한
식품을 잘 알고 있었으며
로 이같은 실험을 통해
판별이 된 식품들과 나의
체질식품의 종류와 일치
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
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발견
한 것이다.
이후 필자는 매일 여러
가지 식품에 관해서 실험
해보며 분류해 놓았다.
이 방법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체질식품 판
별법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사
항들을 줄여서 말하면 유
전공학은 21세기의 주력
산업의 기술이 될 것이며
인류의 4大難題를 해결
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
도 있다. 화학분야의 화
약이나 물리분야의 핵폭
탄이 있듯이 생물분야의
유전공학발전으로 생명
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가, 독성물질 생산하
는 세균을 만든다는 것
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조종력 생물을 창조한다
든가 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는 우선 국가 차원에
서 금지해야 하고 학자
신도 협조하여 기존의 관
행을 깨뜨리지 않고 인류
복지만을 위해 공헌해야
할 것이다.

新刊

상대성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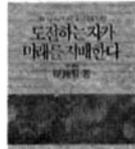
—金鍾五譯(53년 文理大卒, 고려대教授)



아인슈타인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쓴 상대성이론 해설서. 현대물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에 대해 발견자의 입장에서 기술했는데, 譯者는 “大家의 육성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감 있게 들려주려 했다”고 밝힌다. (193쪽, 3천5백원, 미래사판)

도전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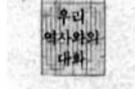
—崔鍾賢著(54년 農大전경그룹 회장, 반회理事)



崔鍾賢이 정립한 SKMS(선경경영관리체계)에 입각하여 企業의 이윤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그간의 신문기고문과 연설문등을 모아 엮었다. (346쪽, 4천5백원, 한국기업문화연구원판)

우리 역사와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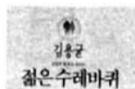
—韓永愚著(62년 文理大卒, 모교教授)



통일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최근 3년여동안 에세이 형식으로 각종 사안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한 책. 한국 근현대역사학의 흐름, 한국의名著중에서, 오늘의 한국화 등 6부로 구성했다. (334쪽, 5천원, 을유문화사판)

젊은 수레바퀴

—金容鈞著(64년 法大卒, 체육청 소년부次官, 본회理事)



저자가 그간 신문·잡지 등에 기고한 칼럼 기행문 수필들을 모아 그간의 여정을 회고하고, 청소년 체육분야에서 일해온 경험들을 토대로 엮

은 책. (283쪽, 3천원, 단양사판)

독일 적군파

—金源治著(66년 法大卒, 서울지검동부지청부장검사)



60년대말 출현, 70년대 중반까지 독일을 공포속으로 몰아넣었던 극좌파 테러단체 바더 마인호프단의 탄생과 발전과정, 재판기록 등을 상세히 서술했다. (403쪽, 6천원, 박문각판)

뉴미디어시대의 방송문화

—金萬龍著(73년 新聞大卒, 外國어대教授)

현대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TV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에세이. 방송의 외적 성장과 눈부신 반면 프로그램 편성과 운용 등에 있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328쪽, 5천2백원, 동아출판사판)

公演

필하모니아 현악중주단 정기연주회

—3월20일 예술의전당
지난 88년 창단, 연 2회의 정기연주회와 자선음악회 등을 개최해온 이팀은 鄭勝榮(71년 音大卒, 제1바이올린) 高周澈(82년 音大卒, 제2바이올린) 李承烈(72년 音大卒, 비올라) 이재규(첼로) 등 모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내악단으로 단원들의 중후한 경력이 돋보인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加勳신의 와킨발드페나스(클라리넷)와의협연으로 베버의 클라리넷 4중주 B장조34번과 쇼스타코비치, 베토벤의 현악4중주가 연주된다.

주운경 첼로독주회

—3월30일 예술의전당
80년 모교音大 졸업후 美보스톤음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간 메사추세츠주를 무대로 10여년간 연주활동을 해온 주운경의 귀국 첫무대.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3번을 비롯, 드비시, 바흐, 마티뉴등이 연주된다.

서울 마스터즈 4중주단 정기연주회

—3월19일 예술의전당

木蘭詩集

—具滋雲著(76년 大學院卒, 산림청 입업연구원)



우리 현대시의 초기를 풍미했던 상징주의의 경향을 새롭게 시도함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저자의 시집. (106쪽, 2천원, 한터판)

달팽이와 TGV

—李光炯(78년 工大卒, KAIST教授), 안은경共著



프랑스에서 유학생활동을 보낸 젊은 부부가 그곳의 역사, 문화, 교육 그리고 가정생활등을 에세이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프랑스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유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288쪽, 4천원, 동아일보사판)



필하모니아 현악 4중주단

全用宇(82년 音大卒, 제1바이올린) 方泳昊(84년 音大卒, 제2바이올린) 陳允一(86년 音大卒, 비올라) 김주심(첼로) 등 KBS교향악단에 속해 있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모여 실내악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여섯번째 정기연주회. 베토벤, 보로딘의 현악4중주와 함께 모짜르트의 Horn을 위한 4중주 407번이 연주된다. 호른 협연은 金泳律(80년 音大卒)동문.

서울피아노트리오 연주회

—3월16일 예술의전당 87년 제4회 예술실내악경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솔트리오'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팀은 金有美(88년 音大卒, 바이올린) 魯仁京(88년 音大卒, 첼로) 라정혜(피아노)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하이든의 피아노3중주 1번G장조를 비롯, 쇼스타코비치, 멘델스존이 연주된다.

서울튜터양상블 정기연주회

—3월12일 예술의전당
李玉姬(70년 音大卒, 피아노) 동문을 중심으로 吳美惠(75년 音大卒, 피아노) 金俊(86년 音大卒, 바이올린) 蔡貞美(86년 音大卒, 피아노) 蔡英圭(76년 音大卒, 바이올린) 趙常運(84년 音大卒, 비올라) 李熙德(70년 音大卒, 첼로) 등 전멤버가 서울대인으로 구성된 실내악단의 9회 정기연주회. 드보락, 모짜르트, 멘델스존이 연주된다.

곽승경, 이교진 하프듀오리사이틀

—3월24일 예술의전당



곽승경·이교진 하프듀오

모교음대 재학생인 젊은 연주자들의 공연. 이들은 佛CIFM을 함께 수료하고,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실내악축제 등에서의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비시의 달빛, 멘델스존의 무언가 등 10여곡이 연주된다.

李相奉(85년 美大卒, 건국대출강)

展示

—그곳으로부터 IV. 120 x 80cm 종이에 수채



나는 그러본다. 모든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숨가쁘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흘러가지 않는 것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간을 넘어 신비한 정적이 감도는 조용한 생각의 장소에서 되찾은 기억의 향기를 읊미하는 꿈을. 조약돌은 작고 강물은 얇다. 하지만 우리의 내부에서 그것은 산처럼 크고 바다보다 깊다. (作家的 노트중에서)

「동문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同窓會報는 19만 同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문을 위한, 동문의 대변지입니다. 동창회 발전 및 동창회보 제작에 동문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새로 마련될 동창회보 「동문의 소리」란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아 래—

- ◇ 동창회 발전에 관한 사항
 - ◇ 동창회보에 관한 사항
 - ◇ 기타 제언이나 의견등
 - ◇ 모교발전을 위한 제언
 - ◇ 동문친목을 위한 일
- 보내실곳 :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학교동창회 회보편집부 (FAX: 703-0755)
— 보내실때는 졸업년도·학과·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63년립에서 열린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제14회 정기총
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李定均(52년 醫大卒·母校
교수) 최근창립원 대학원생
약리학회 초대 회장에 선출
됨.

▲金東熙 (53년 農大
卒·단국대
교수·本會
理事) 2월
17일 농
업중앙회가 선정한 제2회
농촌문화상 학술부문상을 수
상.



▲金東熙 (53년 農大
卒·단국대
교수·本會
理事) 2월
17일 농
업중앙회가 선정한 제2회
농촌문화상 학술부문상을 수
상.

(을) 사장에서 한국코닥(주)
회장의 취임.
▲金範來 (56년 獸醫
大卒·국립
동물검역
소장·獸醫
大同窓會
長) 2월 21일 12시 국립동
물검역소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짐.



▲金範來 (56년 獸醫
大卒·국립
동물검역
소장·獸醫
大同窓會
長) 2월 21일 12시 국립동
물검역소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짐.

▲李承哲(57년 法大卒·前오
산시장) 최근 오산시장명의
퇴임후 수원시 소재 '경기도
유수연수원' 원장으로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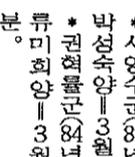
▲李承哲(57년 法大卒·前오
산시장) 최근 오산시장명의
퇴임후 수원시 소재 '경기도
유수연수원' 원장으로 취임.

▲李時榮(59년 文理大卒) 2월
12일 의정부의 교정체기
회장에서 駐오스트리아대
사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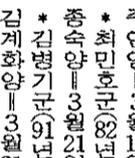
▲李時榮(59년 文理大卒) 2월
12일 의정부의 교정체기
회장에서 駐오스트리아대
사에 임명됨.

▲李升煥 (59년 法大
卒) 2월
12일 의부
부본부특
임장관에
25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자
원봉사자로 瑞符학술장화
재단을 설립.



▲李升煥 (59년 法大
卒) 2월
12일 의부
부본부특
임장관에
25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자
원봉사자로 瑞符학술장화
재단을 설립.

▲尹世榮 (61년 法大
卒·本會理
事) 2월
25일 장기
신용은행
전부에서 은행장으로 승진.



▲尹世榮 (61년 法大
卒·本會理
事) 2월
25일 장기
신용은행
전부에서 은행장으로 승진.

▲金重述(61년 文理大卒·한
국심리학회 회장·母校교수) 2월
12일 의정부 제2차관보에
임명됨.



▲金重述(61년 文理大卒·한
국심리학회 회장·母校교수) 2월
12일 의정부 제2차관보에
임명됨.

▲李承哲(57년 法大卒·前오
산시장) 최근 오산시장명의
퇴임후 수원시 소재 '경기도
유수연수원' 원장으로 취임.

趙完圭 신임 教育部장관

『사회와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教育行政의 책임을 맡게
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
쁘다. 개인으로서 1년
1년 단위의 교수정년제
제우지 못하게 된 것이 못
내어 할기도 할 것이다. 대
학인사상 유례가 없는
시행지도 단사건의 일의
나자 전직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인 趙完圭
(52년 文理大卒) 3월 1일
취임식장에서 이같이 밝히
며 자민당의 비평적인 교
육을 마비할 수 있는 최선
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大學에서 40여년째 지
냈기 때문에 大學에 대한
問題點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教育部
部 전체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2세 교육
임이다.』

投資가 너무 인색하니
다. 그러나 집에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는 그렇지 않다. 양육비
趙完圭는 이제부터라
도 學父母는 물론이려니
와 社會父母는 세우는 사
람, 社會구현원 모두가
『우리자녀들의 교육에
投資를 아끼지 말아달라
고 간곡히 당부한다.』

『國立대의 예산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
문의 母校발전을 국가의
만 의존해서는 세계수의
일류대학이 될수 없습니
다. 세계수의 대학으로
발전하려면 同門들의 깊
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52년 모교 文理大와 대
學院을 졸업하고 55년 대
學에서 40여년째 지
냈기 때문에 大學에 대한
問題點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教育部
部 전체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2세 교육
임이다.

『배달어진 教育 바로 잡을터』 『우리子女』 교육에 너무 인색

우장사로 시작, 출판모
교에서 후진양성의 한책
은 趙完圭(52년 文理
大 卒)가 1981년 12월 12일
大 學에서 40여년째 지
냈기 때문에 大學에 대한
問題點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教育部
部 전체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2세 교육
임이다.

母校 발전하려면 同門의 깊은 關心 있어야

趙完圭는 동문들의 현
재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에 있거나 그것은 모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라고 잘라 말한
후 父母에게 호도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
를 뿌리내리게 한 배움의
토양에 대해 은혜를 갚는
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실제로 90년 3월
6천만 원을 선뜻 모교 법
대에 獎學金으로 내놓아
이를 실천했다. 그러나
趙完圭는 이 장학금이 자
신의 뜻보다는 先親의 뜻
이라고 말한다. 2대 대
法院長을 지낸 그의 부친
趙容淳(22년 京城專修卒
·法大同窓會 2대會長
역임)씨는 생전에 나라가
바로 되려면 법이 엄정해
야 하고 그러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法曹界에서 일
해야 한다고 生前에 장학
기금을 법대에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趙完圭는 앞으로 모교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
면서 이제는 教授職도 없
어졌고 職員도 돌아갈 수
없지만 그동안 도와준 모
든 서울대인들께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洪性
賢씨(60)와의 사이에 2
남 1녀를 두고 있는데
2남 趙完圭가 85년 社會
大經濟學科를 졸업, 결
코 후지않은 同門 3대를
이르고 있다.
(李熙性부장)

- ▲장익환군(86년 農大卒)·김민선양 3월 15일 4시.
- ▲최영환군(88년 社會大卒)·김지아양 3월 17일 1시.
- ▲김준기군(87년 工大卒)·오주연양 3월 18일 1시.
- ▲최민호군(82년 法大卒)·한종숙양 3월 21일 11시 30분.
- ▲김병기군(91년 大學院卒)·김계화양 3월 21일 1시.
- ▲이승훈군(86년 人文大卒)·임경아양 3월 21일 2시 30분.
- ▲장하영군(86년 經營大學院卒)·이소영양 3월 21일 4시.
- ▲이용재군(89년 社會大卒)·김희수양 3월 22일 12시 30분.
- ▲안백훈군(86년 社會大卒)·공윤정양 3월 24일 12시 30분.
- ▲이만열군(86년 經營大卒)·한인애양 3월 25일 12시 30분.
- ▲이영기군(88년 自然大卒)·신혜원양 3월 27일 12시 30분.
- ▲정봉현군(92년 人文大卒)·권규형양 3월 27일 2시.
- ▲박형우군(91년 獸醫大卒)·김미정양 3월 28일 12시 30분.
- ▲이강현군(91년 人文大卒)·우신자양(90년 師範大卒) 3월 28일 2시.
- ▲양승민군(89년 自然大卒)·김현주양 3월 28일 3시 30분.
- ▲강대진군(87년 自然大卒)·전혜자양 3월 28일 11시.
- ▲이창욱군(工大在學中)·최현미양 3월 28일 12시 30분.
- ▲정창현군(88년 人文大卒)·김수현양 3월 28일 2시.
- ▲박진군(87년 人文大卒)·김은진양 3월 31일 1시.
- ▲河龍彩(63년 商大卒·前미원사장) 2월 14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에서 별세. 향년 53세.
- ▲徐柱仁(64년 商大卒·삼성코넵사장) 2월 14일 새벽 0시 48분 자택에서 별세. 향년 53세.



2월 12일 의정부 제2차관보에 임명됨.



▲柳連承 (36년 農大) 卒·母校 명예교수) 11월 21일 발족된 비무장 지대인접지역 생태계 종합화술조사위원회의 회장의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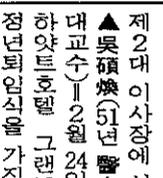
▲梁好民 (49년 文理) 大卒·한류 단발행인) 11월 25일 삼성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湖慶賞의학부문수상자로 선정됨.



▲李允榮 (49년 法大) 卒·한류가 정법률상담소장·본회 理事) 11월 30일 서울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제33회 3.1문화상을 수상함.



▲梁興模 (50년 商大) 卒·선교관 대교수) 11월 21일 同校 정영관홀에서 정년퇴임식 및 기념논문발표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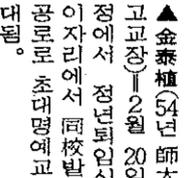
▲吳碩煥 (51년 醫大) 大卒·인제대교수) 11월 24일 오후 7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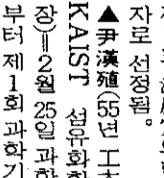
▲盧隆熙 (52년 法大) 卒·母校 교수·本會 理事) 11월 21일 지방자치회 회장으로서 2월 21일 지방행정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黃信浩 (52년 醫大) 卒·동아제약회장·本會 副會長) 11월 21일 지방자치회 회장으로서 2월 21일 지방행정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金泰植 (54년 師大) 大卒·취문고교장) 11월 20일 同校 교정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짐. 이 자리에서 同校 발전에 대한 공로로 초대 명예교장으로 추대됨.



▲李錫汪 (54년 醫大) 大卒·고려대교수·本會 理事) 11월 25일 삼성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湖慶賞의학부문수상자로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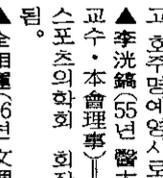
▲尹漢植 (55년 工大) 大卒·KAIST 梁유화학 연구실장) 11월 25일 과학기술자공로부터제 1회 과학기술자공로연 수상자로 선정됨.



▲具本湖 (55년 文理) 大卒·한국개발연구원) 11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 본선한자원이며 재정이론서인 「한국 재정 40년사」 전 7권을 발간.



▲宋廣植 (55년 法大) 卒·한국지역 정책연구구소이사장·本會 理事) 11월 25일 그 동안 연구 발표한 논문 주요 정책분석 자료를 한데 묶은 「정책연구를 펴면」.



▲吳永洙 (55년 法大) 卒·2월 18일 大韓製鋼 前 부이사장) 11월 21일 同校 2층에서 「駐부산 호주명예영사관개관식」을 갖고 호주명예영사로 취임.



▲李洸鎬 (55년 醫大) 大卒·母校 교수·本會 理事) 11월 21일 한국스포츠의학회 회장에 선임됨.



▲金秋珪 (57년 文理) 大卒) 11월 25일 상업은행 전무에서 은행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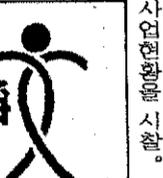
▲張基五 (58년 工大) 卒·本會 理事) 11월 25일 韓電 補修(주) 부이사장으로 승진.



▲崔泰源 (58년 法大) 大卒) 11월 25일 駐이탈리아 대사관에서 駐 튀니지 대사에 임명됨.



▲金鎮福 (58년 醫大) 卒·母校 교수·本會 理事) 11월 25일 아시안 국제제 2회 화학회장으로 2월 25일 부터 28일까지 자유중국 대만에서 열린 同會 학술회에 참석, 개회사 및 위임수술에 관해 특별강연.



▲金環東 (59년 文理) 大卒·母校 단상임이사) 11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아시아재단 후원으로 미국주요대학 발전기금 조성 사업현황을 시찰.



▲權景坤 (60년 藥大) 卒·현임약국 대표·本會 理事) 11월 29일 大韓藥師會 회장으로 선 임됨.



▲李東熙 (59년 文理) 大卒·五成 연구소장) 11월 22일 공사 사장에서 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崔永吉 (59년 醫大) 卒) 11월 25일 의료원의 의료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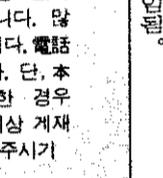
▲朴相大 (60년 文理) 大卒·한국 분자생물학회 회장·本會 理事) 11월 25일 13일부터 15일까지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유전자기능, 유전자연구 및 유전자정보 분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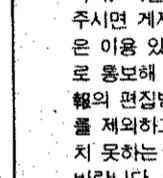
▲崔圭永 (60년 法大) 卒·교통개발연구원) 11월 25일 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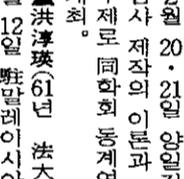
▲吳昌男 (64년 工大) 卒) 11월 25일 동양나이트(주) 부이사장에서 사장 임명됨.



▲李炳宰 (64년 文理) 大卒·대동브레이크(주) 사장) 11월 25일 전안군에 자동차용 브레이크를 제조하는 브레이크 마찰재 공장을 준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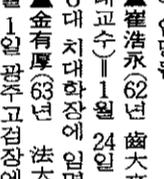
▲李炳宰 (64년 法大) 大卒·前 韓連精) 11월 25일 법재판소사무처장) 11월 25일 서귀포 장산빌딩 3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元武鉉 (61년 商大) 卒) 11월 25일 물산(주) 부이사장에서 사장 임명됨.



▲金永善 (62년 文理) 大卒) 11월 25일 2월 12일 의정부 기획관리실 심의관으로서 駐시드니 총영사에 임명됨.



▲崔浩承 (62년 齒大) 大卒·경희대교수) 11월 24일 同校 제6대 치대학장에 임명됨.



▲金有厚 (63년 法大) 大卒) 11월 25일 1일 광주고검장에서 청와대 리서수석비서관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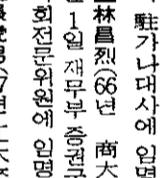
▲李炳宰 (64년 文理) 大卒·대동브레이크(주) 사장) 11월 25일 전안군에 자동차용 브레이크를 제조하는 브레이크 마찰재 공장을 준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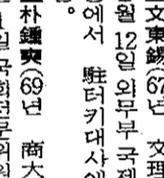
▲李炳宰 (64년 法大) 大卒·前 韓連精) 11월 25일 법재판소사무처장) 11월 25일 서귀포 장산빌딩 3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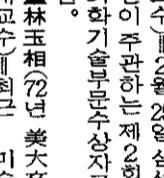
▲鄭仲杞 (64년 商大) 卒·本會 理事) 11월 22일 한일 부자신학부 사장에서 국민신용카드 수석 부사장에 선임됨.



▲申孝憲 (64년 法大) 大卒) 11월 25일 12일 駐인도네시아 공사에 駐가나 대사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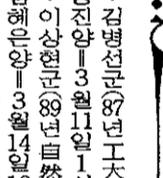
▲林昌烈 (66년 商大) 大卒) 11월 25일 1일 재무부 증권국장으로서 국회전문위원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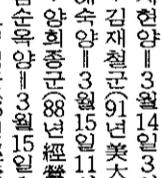
▲張虎男 (67년 工大) 大卒·KAIST교수) 11월 25일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수석회장이 임명됨.



▲文東錫 (67년 文理) 大卒) 11월 25일 12월 12일 의정부 국제기구국장에서 駐터키 대사에 임명됨.



▲朴鍾奭 (69년 商大) 大卒) 11월 25일 1일 국회전문위원에서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金鎮義 (71년 工大) 大卒·母校 교수) 11월 25일 삼성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湖慶賞 과학기술부문수상자로 선정됨.



▲林玉相 (72년 美大) 大卒·전주대교수) 11월 25일 미술전문지 가나아트가 제정하는 제2회 가나미술상장자부문수상자로 선정됨.



▲林大奎 (78년 法大) 大卒·前 인천지방법원 판사) 11월 25일 6월 인천 남구주안 6동 972-1 동산빌딩 407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함.

靜動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 회 員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용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 3회 이상 게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702) 2233-5
FAX: (703) 0755

揭示板

同窓會館 冠岳홀

- * 송원중군(88년 農大) · 서민수양 11월 11시.
- * 장수덕군(88년 自然大) · 노은영양 11월 12시 30분.
- * 정호진군(89년 社會大) · 유현우양 11월 2시.
- * 김병선군(87년 工大) · 이명진양 11월 11시.
- * 이상현군(88년 自然大) · 김혜은양 11월 12시.
- * 정연욱군(86년 自然大) · 이주연양 11월 1시 30분.
- * 박원근군(86년 工大) · 윤지현양 11월 13시.
- * 김재철군(91년 美大) · 임혜숙양 11월 15시 30분.
- * 양희종군(88년 經營大) · 김순옥양 11월 1시.

